

400년전 임진왜란 호남 의병사 연구 기폭제

장흥 출신 의병장 갈웅 문흥개 문집 발굴

국난 이후 초야 은거하며 일대기 회고 유고서첩

이치 전투 참전·이괄의 난 진압 등 역할 기록

최근에 손용선 고문서 수집가에 의해 발굴된 장흥 출신 갈웅(葛翁) 문흥개 문집은 호남의병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영남의병사는 어느 정도 체계화가 돼 있는 반면, 호남의병사는 몇 명의 의병 외에는 조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갈웅의 문집 발굴이 400년 전 임란 당시 호남의병사를 다각도로 연구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집 해제를 한 호남의병연구소 노기욱 소장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갈웅이라는 의병장에 대해 궁금히 여기는 학자들이 적지 않았다”며 “그의 부친 문위세를 비롯한 가문이 알려지면서 갈웅의 존재가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노 소장은 특히 문위세-문흥개 집안의 충의는 제봉 고경명 집안 못지않게 대단했다고 강조한다. 문위세 뿐 아니라 고도부인 박광전 또한 임진왜란 때 67세였던 노구를 이끌고 아들 박근효와 함께 의병에 참가했다.

이번 문집은 갈웅이 1629년 기사년에 초야에 은거하며 자신의 일대기를 회고하며 소회를 피력한 유고서첩이다. 누란의 위기를 맞아 온 가문이 목숨을 내던져 나라를 위해 창의를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갈웅이 참전한 이치 전투에 대한 내용도 가능할 수 있다. 호남의병 활동상을 책으로 묶어내고 있는 양성현 작가의 ‘갈웅 문흥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1592년 8월 14일(음력 7월 8일) 전라도 진산군과 고산현 경계의 이치(배고개)에서 임시 도절제사 권율과 동북현감 황진이 이끄는 1천여 명의 조선군이 왜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이끄는 2천여 명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전투로 일본의 전라도 진격작전을 저지했다.”

또한 1597년(선조30)에 왜적이 다시 침략했을 때, 문위세와 문흥개 부자도 참전한다. 양 작가가 따르면 “문위세는 당시 용담 현령으로 있으면서 흠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아 중요한 거점을 차지하고 이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흥개는 형 문영개와 함께 죽기를 각오한 장사 수백인을 이끌고 사방의 경계로 나누어 나가서 힘을 다해 적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갈웅의 부친 문위세는 임란 때 박광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군량조달 등의 공을 세웠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왜적을 무찔렀으며 1600년 파주목사에 임명됐다. 이후 병조참판에 추증됐으며 현재 장흥군 강성서원에 제향됐다.



갈웅 문흥개 문집

이같은 문위세-문흥개 가문의 활약상은 ‘일성록’ (정조 23년, 1798년 9월 1일(신유))에도 나온다.

“장흥의 유학 임오원 등의 상언에 ‘본도’의 고(故) 목사 문위세, 그의 아들 직장(直長) 문영개와 문흥개 삼부자는 충신공 문익점의 후손입니다. (중략) 임진란 때에 그의 제서 박광전, 벗 임계영과 함께 창의(倡義)하여 적을 토벌하였으며 병사를 모집하고 양식을 모으는 한편, 열읍에 격문을 전달하여 원군의 병사를 불러 모으도록 효유(曉諭)할 아드들록 타이름)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여러 곳의 의병과 함께 기세를 모아 마침내 금산과 성산의 왜적으로 하여금 예봉을 꺾고 스스로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이후 문흥개는 1624년(인조2) 이괄의 난에도 역할을 했다. 양 작가의 ‘갈웅 문흥개’에는 당시 여러 선비들과 병사를 모집해 군량을 모아 신속하게 임금을 보유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때 공을 인정받아 군자감 직장에 제수됐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후 문흥개는 1638년 4월 24일 향년 68세로 타계한다.

한편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한국독자박물관, 여주시립박물관 등 30년에 걸쳐 고문서 감정을 했던 노기욱 박사는 손용선 고문서 수집가, 양성현 호남의병사 작가와 함께 이번 갈웅 문집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 장면

ACC ‘아시아문학페스티벌’ 운영 보조사업자 공모

다음달 13일까지 접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 무대리 이진식)이 ‘2020 제3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을 운영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

ACC는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의 달·아시아문학 100년: 신화와 여성’을 주제로 제3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신청 자격은 ACC와 아시아문학페스티벌 취지를 이해하고 새로운 발상과 기획력을 발휘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단체)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공공기관, 민간부문 등에서 국제행사

관련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이면 가능하다.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며 최종 사업자 선정은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3월 말 발표된다.

공모 참여를 원하는 기관·단체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연구교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ACC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조직위원회는 아시아문학 저변확대 및 시민문학향유증진을 위한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을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법정스님 10주기 추모법회…생전 미공개 사진 눈길

‘무소유’의 철학을 설파했던 법정스님 10주기를 맞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찰 길상사(吉祥寺)에서 추모 법회가 봉행됐다. 법정스님은 무소유를 한평생 실천하고 가르친 수행승이었다. 그는 “무소유는 단 순히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을 뜻한다”며 생명 중심의 나눔의 삶을 강조했다.

법정스님의 뜻을 이어온 새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이날 불교계 인사와 신도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 대종사 10주기 추모 법회’를 거행했다.

법종 소리 속에 시작한 추모 법회는 삼배와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추모 법회와 함께 길상사에서는 법정스님의 생전 일상을 담은 미공개 사진 전시회가 열렸다.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지는 사진전에서는 스님이 차를 마시거나, 털모자를 쓴



스님의 얼굴, 입적 후 다비식 장면, 당시 기자들이 스님을 동행하며 취재하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 70점이 공개됐다.

이들 사진은 이종승, 유동영 씨 등 작가 7명이 송광사 불일암과 길상사 등에서 촬영해 보관하다 맑고향기롭게 측에 기증한 것이다.

/연합뉴스

민음사, 네이버와 손잡고 세계문학전집 오디오북 펴내

도서출판 민음사가 네이버 오디오클럽과 협업을 통해 세계문학전집을 오디오북으로 펴낸다.

문학계에서 메이저 출판사로 전통을 자랑해온 민음사도 거센 플랫폼 변화 바람에 몸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달 ‘데미안’, ‘동물농장’, ‘이방인’, ‘위대한 개츠비’ 출간을 시작으로 한 달에 네 권씩 모두 40여 권을 오디오북 전집으로 만들어 선보일 계획이다.

20여년간 360여권 넘게 발간한 기존 세계문학전집 종이책 콘텐츠의 힘을 바탕으로 전문 성우들의 작품 분석과 더빙을 일려 더 생생한 고전을 만날 수 있다고 민음사는 19일 설명했다.

출시 기념행사도 매달 출간하는 오디오북 중 한 권을 선정해 일주일간 90% 할인 대여한다.

이달은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데미안’



을 오는 24일까지 할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민음사 관계자는 “책의 확장 가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출판사의 오디오북 도전은 꾸준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음사에 따르면 영국출판협회는 올해 영국 오디오북 시장 규모를 1억 1500만 유로로 전망했으며, 틸로이트는 올해 영국 오디오북 판매가 전자책 판매를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여성평등 미술콘텐츠 발굴·향유

광주여성가족재단

기획 전시 공모전 모집

여성평등 관련 미술콘텐츠 발굴과 향유를 위한 공모전이 마련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이 ‘제3회 광주여성가족재단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을 연다.

모집은 시각예술 전 분야의 프로젝트 기획전시를 대상으로 하며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와 기획자, 문화활동가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전시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성 및 가족 관련 전시와 오월광주여성에 관한 전시는 우대할 예정이다.

접수 희망 작가는 별도의 양식 없이 전시 취지 및 작가 약력, 관련 작품 포트폴

리오 등을 포함한 전시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총 5개 팀(명)을 선정하며 3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각각의 전시 개최 비용과 리플릿 제작 비용(150만원 상당) 등을 지원한다. 체험과 토크 등 부대프로그램 추진 시에는 별도의 실비도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이뤄지며 3월 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jinsera@hanmail.net)로 하면 된다. 3월 12일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 뒤 3월 16일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하고 개별통지한다.

선정된 작가(팀)는 협의를 거쳐 4월 중 순부터 재단 전시관에서 순차적으로 전시를 열게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광명천막기업

북구 천변로 285-1 (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 8 (중앙동 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

향촌

서구 상무화원로 32번길 29-3 (차평동)
한우, 생선갑상,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계육볶음, 김치찌개, 냉면
시골떡국 단계순환형
☎ 062)371-0583, 010-3947-0005

우영생기원

동구 독립로 282-10 (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치로,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액, 명당, 철학, 작업, 공학, 태일, 도인양성
각분야 개인지도
☎ 062)236-2655, 010-3646-2977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점문길 8 (나주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독!!
☎ 061)333-4514, 010-3620-7268

남악장례식장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완비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엄가제공
☎ 061)285-0444

연아불교용품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1-1 (영산포구역전암)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양초 판매
☎ 061)334-0088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후튼2차상가 2층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평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 062)511-3388

三代(삼대)원조 나주곰탕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가능 단체환영
☎ 061)287-3229, 010-3602-0297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차평동 세정아울렛점동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하중 ☎ 062)224-486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